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창세기 2:18-24	제2독서	히브리서 2:9-11	복음	마르코 10:2-16
--------	------	-------------	------	-------------	----	-------------

◎ 말씀 < “결혼은 끊임없는 대화” >

결혼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혼인성사를 해준 신부님을 찾아와, 흥분하며 둘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부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혼인성사를 주셨으니 이혼도 해 주세요.” 난감해진 신부님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하자 부부는 막무가내로 생떼를 씩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 “무엇이든지 이혼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부부는 함께 성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부부를 혼인식 때처럼 제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갑자기 신부님은 쇠로 만든 성수채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머리를 번갈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왜 때리십니까” 그러자 신부님왈, “천주교의 혼인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혼인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도 이혼을 원하니 이 방법밖에 없어서...” 오래 전에 선배 신부님으로부터 들은 우스개 소리입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은 이혼이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문제로 갈라서는 부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의 요구를 아내가 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혼 풍속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은 결혼을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만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신비입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혼을 성사로 규정해서 결혼하는 부부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족하고 나약한 두 사람이 한몸이 되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 가정이 행복한 성가정이 되려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인내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와 겸손함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9일(화)	연중 제27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900.00 \$ 1,217.00
10월10일(수)	연중 제27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70.00 \$ 730.00
10월11일(목)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원캠페인	\$ 60.00 \$ 0.00
10월12일(금)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800.00 \$ 270.00
10월13일(토)	연중 제27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6,047.00
10월14일(일)	연중 제28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39성인:189명

교무금 봉헌자 김재선(8-12월)정행순(7-12월)정춘자(10-11월)정규선. 최재진((9-10월)김현진(8-9월)홍명숙(1-4월) 엄영자(6월)이재성(8월)김현준. 신영후. 황호민. 임상일. 안기창(9월)윤영자. 김채홍. 안강순. 김승제. 박용호. 김병준. 장대석(10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묵주기도(默珠祈禱)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 선포와 수난,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에 이르는 신비를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다른 말 ‘로사리오’ (Rosario,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는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 신자들이 몰래 순교자들의 장미관을 모아 그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치곤 했다는군요. 이 밖에도 로사리오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 중 어려움에 봉착한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께서 묵주를 주시며 묵주기도를 널리 전하라 하셨다는 전설과 도미니코 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합송했던 설교 방식에 유래한다는 설, 그리고 12세기 문맹자들이 전례 중에 시편을 읽는 대신 주님의 기도 150회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것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대표적입니다. 어찌 됐든 역대 교황님들은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끊임없이 권장했고 오늘날 묵주기도는 수많은 사람이 즐겨 바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이 담긴 훌륭한 기도입니다. 성모송을 바치는 가운데 사실상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이 우리 영혼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은 우리 개인과 가정, 국가, 교회,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체험과 이웃의 체험, 특히 우리에게 소중하며 가장 가까운 이들의 체험들을 묵주 기도의 연속적인 신비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하지만, 이처럼 인생의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공경의 예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10번의 성모송을 한 다발의 장미로 생각하면서 바칩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월·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환희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화·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수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교회는 로사리오 축일을 지내고 묵주기도 성월을 정하여 묵주기도에 의한 신심을 장려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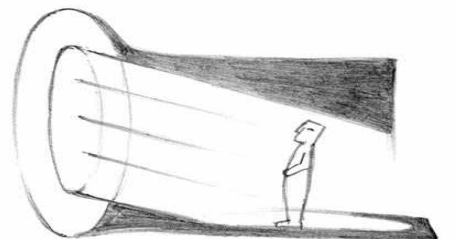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김미숙.모니카	생	박성진.울리아, 김영숙.요세피나의 가정을 위하여	이순자.요안나

◎겨자씨◎

나는 한 알의 겨자씨  
푸른 숲으로 자라고 싶고  
뿌리째 뽑혀서도  
당신의 바다에 뿌리내리고 싶은  
삶의 뽕나무.

한광구 요셉·시인/ 최창원 니콜라오·화가



간  
장  
종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2월18일 출발 <b>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b>  <b>신세계여행사</b> (510)688-0155</p>
---	---	--	--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b>JIMMY KIM 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 W.F.Gormley&amp;Sons Funeral Home</b>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	--	--

